



아라곤 자치주

우에스카
사라고사
테루엘





아라곤—새로운 스페인과 만나다

아라곤은 이베리아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주입니다. 우에스카, 사라고사, 테루엘 3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47,719km², 인구는 약 130만 명입니다.

아라곤의 최대 특징은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북부 우에스카와 이어진 피레네산맥은 유럽으로 가는 교통로 역할을 하며, 중부 사라고사에 흐르는 에브로강은 스페인 북부의 주요 도시와 내륙부를 연결하고, 남부 테루엘에 펼쳐진 이베리아 산맥은 카스티야 지방과 지중해 연안을 잇는 중요한 중계지점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이베리아인, 로마인, 서고트족,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도가 이 지역을 오가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라곤 문화의 결정체인 로마네스크 건축군과 무데하르 건축군은 현재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경관도 아라곤의 볼거리입니다. 해발 3,000m급 봉우리가 모여 있는 피레네 산맥, 스텝 기후(초원 기후)인 사막, 수많은 풍요를 안겨주는 비옥한 평원, 깊은 숲,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웅장한 계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밭에서 무럭무럭 자란 포도를 사용한 와인, 풍부한 목초를 먹고 자란 새끼 양, 햇볕을 잔뜩 쬐 과일, 건조한 토지에서 숙성된 하몬(생햄) 등, 대지의 은혜로움을 즐겨 보세요.

대자연 속에 전원 풍경과 중세의 모습이 고요히 머무르는 아라곤을 무대로, 새로운 스페인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사라고사의 필라르 성모 대성당과 에브로 강

목차

- 2 아라곤주 지도
- 3 목차
- 4 자연 - 피레네 산맥(우에스카)
- 6 자연 - 프레피레네 산맥(우에스카)
- 7 자연 - 이베리아 산맥(사라고사, 테루엘)
- 8 문화유산 - 로마네스크 양식
- 9 문화유산 - 무데하르 양식
- 10 문화유산 - 우에스카
- 11 문화유산 - 사라고사
- 12 문화유산 - 테루엘
- 13 아름다운 소도시 - 우에스카
- 14 아름다운 소도시 - 사라고사
- 15 아름다운 소도시 - 테루엘
- 16 식문화
- 18 축제
- 20 아라곤으로 가는 교통수단
- 21 추천 코스



피레네 산맥 (우에스카)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이자, 전체 길이가 약 450km에 달하는 피레네 산맥.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주, 나바라 주, 아라곤 주, 카탈루냐 주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라곤 피레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해발 고도 3,000m를 넘는 산봉우리가 50곳 이상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과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아라곤 피레네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듭니다. 장엄한 산맥에 새겨진 계곡을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은 아라곤 피레네의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산(3,355m)의 주위로 뻗어나가는 4개 계곡(오르데사 권곡 [圈谷, 빙하 침식 지형], 아니스클로 협곡, 에스쿠아인 협곡, 피네타 권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보존 상태, 산악지대의 장엄한 경관, 풍부한 식물상과 동식물상을 지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국립공원의 진수는 자연의 보고인 오르데사 권곡에 있습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U자형 계곡의 한가운데에는 아라사스 강이 흐릅니다. 깊은 숲속, 혹은 정적에 싸인 웅장한 암벽을 따라서 때로는 폭포가 되고 때로는 잔잔한 강이 되어 흐르는 아라사스 강의 모습은 예로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의 자연 애호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토살 데 마요 암벽, 에스트레초 폭포, 소아소 폭포, 너도밤나무 숲, 콜라 데 카바요 폭포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하이킹 루트를 추천합니다.

에스칼로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니스클로 협곡은 베요스 강에 의해 대지에 깊숙이 새겨진 암벽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스쿠아인에서 들어가는 에스쿠아인 협곡은 자연의 힘을 보여 주는 예시로서, 유유히 흐르는 야가 강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비엘사에서 진입하는 피네타 권곡은 빙하가 만들어낸 부드럽고 목가적인 U자형 계곡입니다. 힘차게 이어지는 능선과 숲으로 뒤덮인 경사면이 펼쳐지는 계곡은 '트레스 소

로레스(Tres Sorores, 라틴어로 세 자매라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인들에게 친근한 3,000m급 연산(몬테 페르디도 산, 실린드로 데 마르보레 산, 소움 데 라몬드 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은 피레네 산맥 동식물상의 표본입니다. 너도밤나무와 소나무로 이루어진 깊은 숲, 송어와 도롱뇽이 헤엄치는 맑은 강과 호수, 산악지대의 깎아 지른 듯한 암벽,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수염수리, 그리고 봄에 활짝 피어나는 작은 고산식물. 하이킹과 트레킹 코스를 걸거나 피레네의 작은 마을을 돌아보러 한 번 둘러보고 싶어지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

안소 계곡, 에초 계곡

아라곤 피레네 서부에 위치하며 완만한 경관이 특징적인 안소 계곡과 에초 계곡은 피레네의 전통가옥이 남아 있는 드문 계곡입니다. 베랄 강, 아라곤 수보르단 강, 온세야 강, 에스타룬 강, 루비에르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은 권곡, U자형 계곡, 산악지대의 호수 등 빙하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라곤 계곡

아라곤 피레네에서 가장 관광지로 활성화된 계곡 중 하나가 바로 아라곤 계곡입니다. 최북단에는 송포르 고개가 있으며,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에서 아라곤 주로 이어집니다. 순례길은 아라곤 강을 따라 계곡 전체에 걸쳐져 있으며, 중심도시 하카를 지나 나바라 주로 이어집니다.

테나 계곡

아라곤 피레네 중앙에 자리한 테나 계곡은 피레네 산맥 최대 규모의 면적을 자랑하며,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풍광이 뛰어난 계곡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산봉우리, 숲, 호수가 사람들과 공존합니다. 비에스카스, 오스 데 하카, 트라마카스티야 데 테나, 판티코사, 라누사, 사엔트 데 가예고 등 작은 산골 마을이 그림엽서 같은 경치를 만들어 냅니다.



안소 계곡

베나스케 계곡

아라곤 피레네 서부에 있는 베나스케 계곡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숨겨진 계곡”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이 남아 있는 경관은 다른 계곡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포셋 말라데타 자연공원에 우뚝 솟은 피레네의 최고봉 아네토 산(3,404m)은 베나스케 계곡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등산 코스

아라곤에는 다양한 레벨과 경험치에 맞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등산 코스는 장거리 트레일(GR)과 단거리 트레일(PR)로 나뉘며, 장거리는 흰색과 빨간색 선, 단거리는 흰색과 노란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장거리 트레일은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며 총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반면 단거리 트레일은 마을이나 산장 등을 목적지로 삼고서 특정 지역을 걷습니다. 중주나 알파인 클라이밍 코스도 다양합니다. 든든한 산장 네트워크가 등산의 폭을 더욱 넓힙니다. 피레네 산맥에서도 특히 해발 고도가 높은 산봉우리들이 모여 있는 아라곤 피레네는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오르데사 계곡





마요스 데 리글로스

프레피레네 산맥 (우에스카)

프레피레네 산맥은 피레네 산맥과 에브로 강 유역 중간에 위치한 1,000m~2,000m급의 산맥입니다. 해발 고도는 피레네 산맥에 미치지 못하지만, 독특한 지형 때문에 래프팅, 캐니어링(계곡에서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익스트림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하이킹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흐르는 강이 산을 깎아 만들어 낸 역동적인 경치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장소를 소개합니다.



프레피레네 산맥과 아몬드 나무



베로 협곡

시에라 이 카노네스 데 구아라 자연공원

이 자연공원은 아라곤의 프레피레네 산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아라 산맥에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싱카 강의 지류인 알카나드레 강, 베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에스카 시 근교의 암벽인 살토 데 룰단에는 중세의 기사 롤랑이 적에게 쫓기면서 암벽에서 암벽으로 말을 타고 뛰어 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산맥의 남쪽에서는 참나무 숲으로 대표되는 지중해성 식물과 기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곳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물의 침식과 석회암의 풍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깊은 협곡입니다. 물의 마법에 걸린 수많은 우열(雨裂, gully), 동굴, 폭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요스 데 리글로스

마요스는 아라곤어로 「암벽」을 뜻합니다. 마요스 데 리글로스는 아라곤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경관 중 하나입니다. 300m에 달하는 적갈색 수직 암석 형성은 마치 거인처럼 리글로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의 귀중한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흰머리수리와 붉은머리독수리, 독수리, 이집트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접한 암괴인 마요스 데 아구에도 독수리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암괴 사이로 아름다운 가예고 강이 흐르며, 여름에는 래프팅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로 붐빕니다.



몬카요 산

이베리아 산맥 (사라고사, 테루엘)

스페인의 여섯 자치주에 걸쳐 있는 이베리아 산맥은 이베리아 반도를 흐르는 많은 강의 원류가 있으며,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산계의 하나입니다. 산맥의 대부분은 사라고사와 테루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활한 경작지에 그려지는 완만한 산의 능선, 자연과 인간의 삶이 공존하는 이 지역만의 풍경을 만나러 갑니다.



몬카요 산



로데노의 소나무 숲

몬카요 자연공원(사라고사)

우에스카의 피레네 산맥과 프레피레네 산맥에서 사라고사에 들어서면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해발 고도가 낮아지면서 스텝 기후의 건조한 공기와 에브로 강 유역의 한기가 두드러지는 기후로 바뀝니다. 에브로 강 유역과 카스티야의 황야에 자리한 몬카요 자연공원에는 이베리아 산맥 최고봉인 몬카요 산(2,313m)이 솟아 있습니다. 참나무 숲, 소나무 숲 등 다양한 식물로 둘러싸인 하이킹 코스를 걸으며 수많은 놀라운 탐색을 해 보세요. 가을에는 유럽에서 최남단인 너도밤나무 숲이 산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맑은 날에는 산 정상에서 피레네 산맥과 이베리아 산맥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신 연산(테루엘)

수수께끼 같은 테루엘의 자연은 여행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중 하나가 테루엘 남서부에 위치한 알바라신 연산입니다. 고원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1,000m로 올라가며, 타호 강, 투리아 강, 후카르 강 등, 이베리아 산맥을 대표하는 하천의 원류가 있습니다. 알바라신 근교의 「로데노 소나무 숲 경관 보호구역」(피나레스 데 로데노)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입니다. 적갈색 단층 절벽에는 해안송 숲이 펼쳐지며, 그 속에 산재한 선사시대 벽화도 유명합니다. 매, 수리부엉이, 유럽 노루가 서식하는 풍요로운 자연 환경의 산맥을 방문해 보세요.



로아레 성

아라곤의 문화유산 - 로마네스크 양식과 무데하르 양식



산 후안 데 라 페냐 옛 수도원

로마네스크 양식 - 돌로 만드는 보석

예로부터 아라곤은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이베리아 반도에 전래되는 관문이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최신 건축 기술이 전해졌기에, 아라곤은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네스크 건축군이 남아 있는 지역 중 한 곳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8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도가 지배하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피레네 산부터 시작해 영토를 넓혀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당, 성당, 대성당, 수도원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반원 아치와 중후한 포석, 소박하고 표현력이 뛰어난 조각 장식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주요 특징입니다.

아라곤의 3대 로마네스크 건축물은 산 후안 데 라 페냐 옛 수도원, 로아레 성, 하카 대성당입니다.

또한, 피레네 산맥의 계곡에도 놀라운 로마네스크 건축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산 페드로 데 시레사 수도원(에초 계

곡), 산타 마리아 데 이구아셀 성당과 산 아드리안 데 사사베 옛 수도원의 성당(아라곤 계곡), 세라블로 성당 건물군(테나 계곡) 등입니다.

우에스카 시에는 산 페드로 엘 비에호 성당에 아름다운 회랑이 남아 있습니다. 소브라르베 지방에는 아인사의 성당 및 라 푸에바 계곡의 로마네스크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이사베나 계곡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보석인 로다 데 이사베나 대성당이 있으며, 공개된 지하 예배당과 작지만 아름다운 회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고사에는 라스 싱코 비야스라는 이름의 로마네스크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특히 소스 델 레이 카톨릭교와 운카스티요에는 많은 성당이 남아 있는데, 과거 두 왕국의 국경지대였던 사실에서 유래한 요새 같은 외관이 눈길을 끄니다.

에브로 강을 건너면 다르카의 로마네스크 건축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지역에서 발전한 무데하르 양식의 영향도 볼 수 있는 진귀한 건축물입니다.



세라블로 성당 건물군



살바도르 대성당

무데하르 양식 - 두 문화의 융합

「무데하르」란 기독교 세력의 레콩키스타(국토 회복 운동) 후,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지 않고 종교와 습관, 문화를 유지한 이슬람교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라곤의 무데하르 건축은 13세기, 14세기에 현재의 테루엘 지역을 중심으로 꽃피운 건축 양식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가 공존하는 결정체입니다. 독자적이고 유일무이한 표현 기법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무데하르 장인은 벽돌, 석고, 목재, 유약 같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으며, 기하학 문양과 아라비아 문자, 빛의 명암을 정교하게 다루면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지식과 기술

을 겸비하였습니다. 아라곤에는 이러한 이슬람교도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에 반원 아치, 첨탑 아치 같은 기독교 건축을 훌륭히 응용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라곤에는 157개의 무데하르 건축물이 현존합니다. 그 중에서도 테루엘 시에 있는 무데하르 양식 탑(산 페드로 성당의 종탑,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종루, 산 마르틴 탑, 엘 살바도르 탑)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한 사라고사 시에서는 무데하르 양식의 아름다운 외벽이 남아 있는 라 세오 대성당,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로 불리는 알하페리아 궁전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살바도르 대성당



루나 성(메소네스 데 이슈엘라)



칸프랑크 국제 기차역

문화유산 (우에스카)

아라곤 북부에 위치한 우에스카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이슬람교도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시절, 피레네 산속으로 도망쳤던 기독교인들은 백작령과 왕국을 형성하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 시대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건축물은 간소하고 소박한 분위기 속에 역사의 깊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험준하지만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문화유산을 둘러봅니다.

산 후안 데 라 페냐 옛 수도원

하카에서 수 킬로미터 지점에 중세 건축물의 걸작으로 이름난 수도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초기 아라곤 왕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산 후안 데 라 페냐 옛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름의 유래인 커다란 바위산(스페인어로 페냐)으로 지켜지듯이 지어진 건물은 주변 자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표정의 등장인물과 성경의 장면이 함께 조각된 기둥머리가 늘어선 로마네스크 회랑은 아름다운 모습이 돋보입니다.

로아레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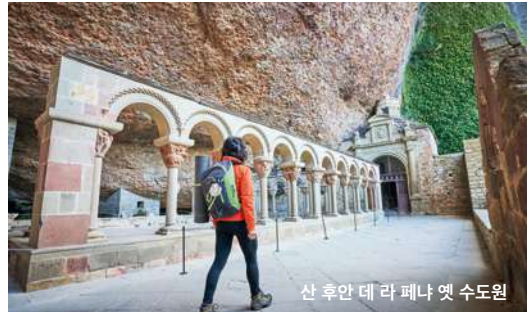
아라곤 로마네스크 건축물의 보물 중 하나인 로아레 성은 암벽이 눈에 띄는 고지대 중턱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로마네스크 건축물 중 하나로, 영화 촬영에도 사용된 성 내부에 들어서면 중세 시대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감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발 1,070m에 자리한 성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우에스카 평원의 전망은 잊을 수 없는 경치가 될 것입니다.

칸프랑크 역

프랑스에서 송포르 고개를 넘어오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나는 아라곤 계곡에는 칸프랑크 역이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 멈춰 선 역사는 길이가 240m에 이르며, 한쪽 벽에 문이 75개씩 달린 20세기 건축물입니다. 1928년에 개통되어 1970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한 국제역은 지금도 사라고사 시에서 운행하는 칸프라네로 열차의 종착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다 데 이사베나 대성당

고지대에 서 있는 로다 데 이사베나에서 정취 어린 구시가지를 걸으면 11세기에 건설이 시작된 대성당과 마주칩니다. 18세기에 증축된 종루와 정문의 파사드(façade, 건축물의 주 출입구 정면부)가 눈길을 끌지만, 로마네스크의 보석은 성당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지하 예배당, 벽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화, 눈이 휘둥그레지는 석관의 조각. 소도시에 남아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심오함에 놀라실 겁니다.



산 후안 데 라 페냐 옛 수도원



로다 데 이사베나 대성당



라 세오 광장

문화유산 (사라고사)

사라고사는 예부터 대서양과 지중해, 스페인과 유럽을 연결해 온 교통의 요지입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빌바오 등 스페인 주요 도시의 중앙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항상 물류의 중심 도시로서 번성해 왔습니다. 일찍이 레콩키스타가 시작된 우에스카에 비해 이슬람 문화의 발자취가 선명히 남아 있는 것도 사라고사의 관광 포인트입니다. 사람, 물류, 문화의 교차로, 사라고사를 돌아 봅시다.



고야 상



로마 유적



피에드라 수도원

사라고사 시

사라고사 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카이사라우구스타라는 이름의 식민 도시로 건설되어 스페인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성벽, 공공 광장, 목욕탕, 그리고 당시 최대 규모였던 극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알하페리아 궁전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이라고도 불립니다. 11세기 이슬람 군주의 궁전, 14세기 무데하르 궁전, 15세기 말 고딕-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이 혼재된 최고의 보물입니다. 카톨릭 공동왕의 '왕좌의 방'은 꼭 관람해야 할 곳입니다.

필라르 성모 대성당은 사라고사를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스페인에서 포교 활동을 하던 야고보(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의 앞에 기둥(스페인어로 필라르)에 올라선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전설이 기원인 대성당은 스페인 최대 규모의 바로크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라르 성모 대성당에서 수 미터 옆에 세워진 세계유산 살바도르 대성당은 「라 세오」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친숙하며, 로마네스크 양식부터 신고전주의까지 미술 양식이 집약된 「살아 있는 미술사」 같은 건물입니다.

고야 코스

사라고사 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푸엔데토도스에서는 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야의 생가와 판화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사라고사 시에서는 고야가 필라르 성모 대성당에 그린 천장화 2점, 고야 미술관의 고야 작품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라소나 대성당

사라고사 시에서 서쪽으로 90km 떨어진 타라소나에는 「스페인 르네상스 시대의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데 라 우에르타 대성당이 있습니다. 무데하르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장식으로 꾸며진 고딕 건축물을 방문해 보세요.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 자연공원

사라고사 시에서 112km 떨어진 곳에 물과 바위가 만들어진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피에드라 강이 만드는 장엄한 폭포와 수많은 호수, 동굴 등을 산책 코스를 삼고 걸으면서 즐겨 보세요.



문화유산 (테루엘)

아라곤 남부에 위치한 테루엘은 광활한 평지와 풍부한 자연 환경을 지닌 이베리아 산계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마드리드, 발렌시아, 사라고사 등 대도시 에 둘러싸여서 지나치곤 하는 지역이었으나, 1999년 「테루엘은 존재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도시로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라곤의 무데하르 건축물 중에서도 일찍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테루엘 시의 탑 4곳을 시작으로, 구경거리가 가득한 거리를 걸어 봅니다.

무데하르 양식의 4개 탑

테루엘 시의 구시가지에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의 종루, 산 페드로 성당의 종탑, 산 마르틴 탑, 엘 살바도르 탑으로 이루어진 4개의 탑이 있습니다. 이 탑들은 「아라곤의 무데하르 건축군」의 선두로서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탑에 박힌 아름다운 도자기 장식, 저녁노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기하학 문양의 돌을새김, 탑에 기품을 더하는 반원 아치와 첨탑 아치가 여행자들을 중세로 이끕니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

13세기에 건축된 무데하르 양식의 탑이 아름답게 서 있는 대성당에 발을 들이면 위엄있는 격자 천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3세기~14세기 초에 만들어진 목조 천장에는 아라비아 문자, 식물, 기하학 문양, 종교적인 모티브와 함께 중세시대 테루엘에 살았던 장인들이 선명한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테루엘의 연인들」의 묘

테루엘에는 13세기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이사벨과 후안(후대의 연극에서는 디에고로 알려짐)이라는 연인들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테루엘의 연인들」의 묘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지게 된 두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매년 2월이면 마을 전체를 무대로 삼고서 중세시대의 이야기가 야외극으로 재현됩니다. 두 사람의 묘가 있는 산 페드로 성당에서는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아름다운 천장이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무데하르 양식의 탑(위쪽도 동일)



알케사르

아라곤의 아름다운 소도시와 마을

아라곤에는 시간을 되돌린 듯한 풍경이 남아 있는 소도시와 마을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오래 쌓아 올린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모습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즐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세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면서 한가로이 산책하다 보면 아름다운 골목과 마주쳐서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춥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마법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전원의 소도시와 마을을 방문합니다.



알케사르



아인사

아인사(우에스카)

중세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인사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흐르는 아라 강과 싱카 강이 합류하는 고지대에 이 마을의 구시가지가 머물러 있습니다. 불규칙한 형태의 진귀한 포르티코(portico, 주랑 현관)가 있는 마요르 광장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립니다. 광장의 한쪽에는 30m에 달하는 종루를 지닌 중후한 로마네스크 건축물, 산타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경치에 안긴 아름다운 경치의 중세 마을을 걸어 보세요.

알케사르(우에스카)

프레피레네 산맥을 흐르는 베로 강에 싸인 요새 마을, 알케사르.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 강이 만든 자연의 조각품 같은 협곡, 마을의 고지대에 세워진 성당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냅니다. 구시가지에는 작은 마요르 광장 및 귀

족의 옛 저택 터가 늘어서 있습니다. 성당에 고요히 자리 잡은 로마네스크 양식 회랑, 구약 성경의 장면이 그려진 기둥머리는 관광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하카(우에스카)

아라곤 왕국의 옛 수도, 하카는 피레네 산맥과 나란히 서 있는 탁 트인 계곡에 있습니다. 하카 대성당은 스페인의 대성당 중 가장 오래된 곳의 하나로서, 스페인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성당에서 시작된 「하카식 모자이크 무늬」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 북 스페인 전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대성당에 병설된 주교 미술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로마네스크 벽화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지어진 오각형 성곽인 시우다델라도 볼거리입니다.



운 카스티요



소스 델 레이 카틀리코

소스 델 레이 카틀리코(사라고사)

사라고사 북서부, 나바라 주와의 경계 근처에 중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소스 델 레이 카틀리코가 있습니다. 돌 포장길, 석조 가옥, 목제 차양, 문을 장식하는 문장,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창문이 여행자들을 먼 과거로 이끕니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팔라시오 데 사다는 1452년 페르난도 2세(카톨릭 공동왕)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산 에스테반 성당에서는 고딕 양식의 선명한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운 카스티요(사라고사)

소스 델 레이 카틀리코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운 카스티요가 있습니다. 12세기 스페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최고 경지로 손꼽히는 성당 건물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네스크 성당 7곳과 성벽 터, 옛 유대인 거리, 성관이 마을의 시간을 멈춘 것처럼 서 있습니다. 산 타 마리아 성당의 로마네스크 조각, 산 마르틴 성당의 로마네스크 미술 센터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로카(사라고사)

사라고사 남부에 위치한 다로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입니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문을 빠져나가면 시대를 뛰어넘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옛 유대인 거리와 성체포를 보관한 산 타 마리아 성당, 고딕 양식 벽화가 남아 있는 산 미구엘 성당, 로마네스크 양식과 무데하르 양식이 혼재된 산토 도밍고 성당과 산 후안 성당도 볼거리입니다.



다로카



알바라신

알바라신(테루엘)

테루엘 시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알바라신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한 곳으로 뽑힌 이곳의 구시가지는 장밋빛으로 반짝이며 잊을 수 없는 경관을 만들어 냅니다. 목재와 붉은 석고벽으로 만들어진 집이 늘어난 주택가와 골목길, 기울어진 형태의 계단, 나무 발코니, 튼튼한 철 세공, 긴 처마가 포개진 풍경은 산간 마을의 역사를 조용히 전합니다.



발데로브레스

발데로브레스(테루엘)

테루엘 동부에 있는 발데로브레스에서는 마타라냐 강에 놓인 돌다리, 다리와 이어지는 산 로케 문이 여행자들을 구시가지로 안내합니다. 구시가지의 고지대에는 위엄 넘치는 성과 고딕 양식의 산타 마리아 라 마요르 성당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길을 헤매면서 역사 영화의 무대 같은 마을 안을 걸어 봅시다.



알바라신



미람벨

루비엘로스 데 모라(테루엘)

테루엘 남부의 미하레스 강과 지류가 만드는 계곡에 위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마을입니다. 구시가지와 그곳의 건물은 이 마을의 오랜 역사를 말해 줍니다. 시청사 및 고딕 양식의 옛 거래소 등이 관광 명소입니다.



루비엘로스 데 모라



테루엘의 하몬

아라곤의 식문화

아라곤은 전통음식부터 최신 요리까지 폭넓은 식문화를 자랑합니다. 풍요로운 대지에서 자란 신선한 식재료,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원산지 명칭 인증 하몬과 양고기, 햇별을 잔뜩 찢 포도로 만든 와인, 아라곤의 맛이 응축된 소박한 향토 요리들. 미술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과 현지인이 모이는 바르 거리에도 걸음을 옮겨 봅시다. 먹어 보아야 알 수 있는 아라곤 요리의 깊은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트러플



사프란



치즈

아라곤의 식재료·식료품

아라곤에는 이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맛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아라곤 요리에 많이 쓰이는 보라하(지치)라는 식물과 블랙 트러플, 사프란, 말린 토마토, 꿀, 다양한 원산지의 치즈입니다. 각지의 고급 과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에스카 시의 얇은 반죽 케이크인 파스텔 루소, 알무데바르의 파인 트렌사 데 알무데바르, 밤 모양의 마지팬 등이 유명합니다.

아라곤의 원산지 명칭

스페인에서는 '데노미나시온 데 오리헨'이라는 원산지 명칭 제도로 최고 품질의 식료품을 보증합니다. 바호 아라곤 지역의 올리브유, 칼란다의 황도 등은 그 땅의 기후와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대지의 맛입니다. 테루엘의 하

몬과 아라곤의 새끼 양은 아라곤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맛보고 싶어지는 식재료입니다. 테루엘 북부에서는 좁고 건조한 독특한 환경 조건 때문에 예전부터 고품질의 하몬이 생산되었습니다. 천연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로 만든 테루엘의 하몬에는 테루엘의 심볼인 팔망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몬을 자르면 촘촘히 들어간 비계와 반짝이는 듯한 연한 분홍색이 돋보이며, 입에 넣으면 짠맛을 줄인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단맛이 입 안에 퍼집니다.

아라곤의 새끼 양은 모유와 곡물로만 키운 생후 90일 이하의 8~12kg 정도 되는 어린 양을 일컫습니다. 오븐 구이 및 숯불구이로 조리하면 냄새가 없으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고품질 양고기입니다. 아라곤에는 스페인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인사

와인

최근 아라곤에서는 와인 투어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라곤에는 원산지 명칭을 인증받은 포도 재배·와인 양조 지역이 4군데 있습니다. 우에스카의 소몬타노, 사라고사의 카리네나, 캄포 데 보르하, 칼라타유드입니다. 소몬타노는 에브로 강 유역과 피레네 산맥에 끼인 국소 기후 지역에 속하며, 다른 산지에 비해 포도의 숙성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고사의 산지 세 곳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로 가르나차(프랑스어로 그르나슈) 품종 포도입니다. 가르나차는 아라곤 추가 원산지인 적포도로, 목 넘김이 좋은 깊은 산미와 짙은맛이 특징입니다.

버스 투어, 와이너리 견학, 시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와인 투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와인의 맛을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아라곤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타파스 투어

타파스(한입 안주)는 스페인의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바르(bar, 서서 마시는 선술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타파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르마다 자신 있게 내어놓는 메뉴부터 스페인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표 메뉴까지, 타파스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바르 거리에 발을 들여서, 와인을 곁들여 현지 주민들과 함께 아라곤의 맛에 입맛을 다셔 봅시다.

사라고사의 주도인 사라고사 시에는 구시가지의 한 골목에 엘 투보라고 불리는 바르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바르



와인 투어리즘

가 모여 북적거리는 복잡한 걸목을 걸으면서 버섯 맛집, 고로케 맛집, 안초비 맛집 등 각 바르가 자랑하는 타파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테루엘 시의 구시가지, 우에스카 시의 파드레 우에스카 거리도 항상 활기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에서는 매년 타파스 콩쿠르가 개최되며, 참가자는 맛있는 타파스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아라곤의 향토 요리

아라곤 요리는 소박한 조리법이 특징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식탁을 장식하는 전통음식을 소개합니다. 집밥 요리에 빼놓을 수 없는 '보라하'라는 식물은 바지락, 홍합과 함께 담백하게 무쳐 먹습니다. 예부터 보존 식품으로서 귀하게 여겨진 대구에 마늘을 넣어 만든 바칼라오 알 아호 아리에로, 아라곤의 새끼 양 오븐 구이 등, 재료에 맞는 조리법으로 그 맛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닭고기를 토마토 소스로 졸인 칠린드론식 닭고기 요리는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스의 맛이 진한 일품요리입니다.



이사벨의 결혼식

아라곤의 축제

절경을 품은 자연과 수많은 문화유산에 더해, 1년 내내 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아라곤의 볼거리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렸으며 생명과 전통이 흘러넘치는 이 행사들은 현지인들을 들뜨게 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국내외의 관광객도 매료시킵니다. 세마나 산타(성주간)로 대표되는 종교 행사에서 유래한 축제, 역사적 사실과 전설에서 유래한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축제를 소개합니다.

성녀 필라르 축제(사라고사 시, 10월)

사라고사의 필라르 축제는 매년 10월 중순이면 9일에 걸쳐 수많은 참가자와 다양한 문화 행사, 종교행사와 함께 개최됩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는 10월 12일에 진행되는 성모에게 바치는 헌화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필라르 광장에 설치된 헌화대까지 걷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3일 밤에 진행되는 유리 로사리오 행렬은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300개 이상의 등불과 15대의 수레가 구시가지지를 행진하는 행사입니다. 다채로운 색을 발하는 유리 세공은 활기찬 축제를 잠시 신비한 분위기로 감쌌습니다. 그 외에도 아라곤 전통 춤인 호타 무대와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산 로렌소 축제(우에스카 시, 8월)

우에스카 시의 수호성인 산 로렌소(성 라우렌티우스)를 기념하는 산 로렌소 축제는 매년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거리는 차분한 평소 모습에서 돌변해서 하얀 옷과 녹색 스카프를 몸에 걸친 사람들이 오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뀝니다. 로스 단산테스로 불리는 우에스카의 전통 춤 행진과 투우 등이 볼거리입니다. 또한 칠린드론 식 닭고기 요리는 축제 기간에 먹을 수 있는 전통요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사벨의 결혼식(테루엘 시, 2월)

매년 2월 이사벨의 결혼식을 재현하여 개최되는 이 축제는 「테루엘의 연인들」의 전설을 따른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인지도가 높아진 이 축제는 많은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대형 이벤트로 발전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테루엘의 거리는 시간을 13세기로 되돌려서, 당시의 의복을 입고 신분 차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이사벨과 후안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극장으로 변한 거리에서 중세로 떠나는 여행을 즐겨 봅시다.



필라르 축제



산 로렌소 축제

아라곤 여행을 위한 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중간에 있는 아라곤은 접근 편리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교통의 요지인 사라고사는 스페인의 대표 도시들과 고속 열차, 버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문화, 역사, 미식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아라곤 여행을 즐겨 보세요!

아라곤으로 가는 교통수단

아라곤으로 이동할 때는 아라곤의 주도 사라고사 시(Zaragoza), 우에스카 시(Huesca), 테루엘 시(Teruel)를 기점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우에스카로 가는 방법

 마드리드 아토차 역	➔  고속열차 AVE	➔  약 2시간 반
 바르셀로나 산츠 역	➔  고속버스	➔  약 4시간
 사라고사 델리시아스 역	➔  고속버스	➔  약 1시간
 레리다	➔  고속버스	➔  약 2시간 반



우에스카

사라고사로 가는 방법

 마드리드 아토차 역	➔  고속열차 AVE	➔  약 1시간 반
 바르셀로나 산츠 역	➔  고속열차 AVE	➔  약 1시간 반
 빌바오	➔  고속버스	➔  약 4시간
 산 세바스티안	➔  고속버스	➔  약 3시간 반
 팜플로나	➔  고속버스	➔  약 2시간 반



사라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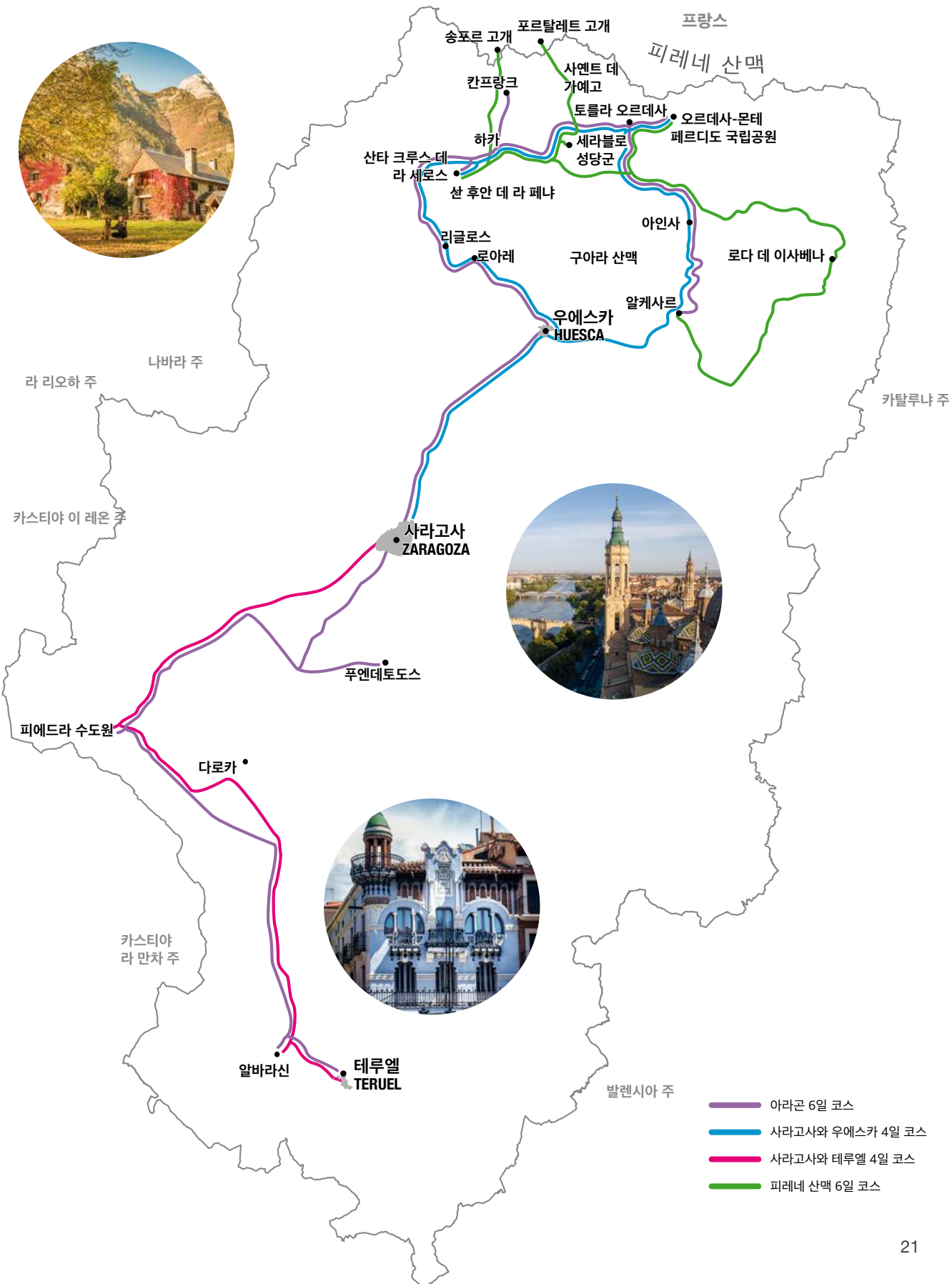
테루엘로 가는 방법

 사라고사 델리시아스 역	➔  열차	➔  약 2시간 반
 발렌시아	➔  열차	➔  약 2시간 반
 발렌시아	➔  고속버스	➔  약 2시간



테루엘

아라곤 여행을 위한 추천 코스



- 아라곤 6일 코스
- 사라고사와 우에스카 4일 코스
- 사라고사와 테루엘 4일 코스
- 피레네 산맥 6일 코스



필라르 대성당과 에브로 강(사라고사)

아라곤 6일 코스

아라곤의 자연과 문화를 온전히 만끽하는 루트. 피레네 산맥의 산악 지대에서 에브로 분지로 나아가 이베리아 산맥으로. 아름다운 마을, 작은 성당, 변화한 시장, 바르, 대성당 등, 풍경 구석구석에 대자연이 길러낸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아라곤 결정판 코스입니다.



라 세오 광장(사라고사)

둘째 날 | 아인사 → 오르데사 국립공원 → 캄프란크 → 하카

세계유산에 등재된 자연의 보고,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 하이킹, 해발 2000m 전망대 투어 등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 등산로 입구의 마을 톨라에 들렀다가 산티아고 순례길 루트 중 하나인 「아라곤 길」이 지나가는 아라곤 계곡으로. 「피레네의 귀부인」이라 불리는 캄프란크 국제역, 순례길에서 가장 큰 숙소 마을인 하카의 대성당 등 문화유산도 즐겨져 늘어서 있습니다.



아인사

첫째 날 | 알케사르 → 아인사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등록된 두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슬람교도가 만든 알케사르는 베로 협곡에서 즐기는 하이킹과 산타 마리아 성당이 관광 명소. 아인사에서는 중세의 정취를 간직한 구시가지 산책과 피레네 산맥의 전망을 즐겨 보세요.



알케사르

셋째 날 | 하카 →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 리글로스 → 로아레 → 우에스카

아라곤 로마네스크 건축의 보배인 페냐 수도원에서는 아라곤 왕국의 역사를 펼쳐 보세요. 피레네 산맥에서 프레 피레네 산맥으로 산을 넘어가면 올리브, 체리, 아몬드 나무가 펼쳐지는 풍경으로 바뀝니다. 300m 높이의 리글로스 암괴와 유럽 최고의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성, 로아레 성을 방문하고 우에스카 시로 향합니다.

아라곤 6일 코스



오르데사 국립공원

다섯째 날 | 사라고사 → 푸엔데토도스 → 피에드라 수도원 → 알바라신

푸엔데토도스에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 고야의 생가와 판화 미술관을 감상하고, 피에드라 수도원에서 수경과 나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 단애 절벽과 성벽에 둘러싸여 역사의 향기가 짙은 알바라신은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한 곳. 적갈색 시내 풍경은 아침, 저녁, 밤, 언제 보아도 마음이 설렙니다.



피에드라 수도원

여섯째 날 | 알바라신 → 테루엘

여행의 마무리는 테루엘의 주도, 테루엘 시에서. 높직한 언덕에 자리한 구시가지에는 세계 유산에 등재된 무데하르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세 종교가 공존했던 역사를 전하는 무데하르 양식의 탑 4개를 비롯해, 대성당과 토리코 광장이 볼 만합니다. 원산지 명칭을 지닌 「테루엘 하몬」도 꼭 드셔 보세요.



알바라신

넷째 날 | 우에스카 → 사라고사

우에스카 시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회랑이 뛰어난 산페드로 엘 비에호 성당, 아름다운 칸막이 조각이 장식된 대성당을 방문해 보세요. 아라곤의 주도, 사라고사는 필라르 대성당, 살바도르 대성당, 알하페리아 궁전 등 볼거리가 가득. 밤에는 구시가지 「엘 투보」 지구에서의 바르투어를 잊지 마세요.



산 마르틴 탑(테루엘)



마요스테리글로스

사라고사와 우에스카 4일 코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지 사라고사에서 출발. 스페인의 제5 도시 사라고사는 세계유산 건축물, 바르, 아름다운 구시가지 등 볼거리가 넘칩니다. 아라곤 북부 우에스카에서는 로마네스크 건축물과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옛 도읍지와 만납니다. 피레네 산맥의 대자연과 한가로운 전원 풍경 속에서 느긋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 사라고사

필라르 성모 대성당을 기점으로 구시가지 산책. 세계 유산인 살바도르 대성당과 로마 시대의 유적군, 뛰어난 판화 컬렉션을 자랑하는 고야 미술관, 구 시가지의 골목, 「엘 투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바르 지구의 타파스 투어를 추천합니다. 알하페리아 궁전에도 꼭 걸음을 옮겨 주세요.

둘째 날 | 사라고사 → 알케사르 → 아인사

스페인 제5 도시를 뒤로 하고 우에스카로. 스페인 전역에 약 100곳이 있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알케사르와 아인사를 방문합니다. 이슬람의 향기가 떠다니는 알케사르와 중후한 석조 도시 아인사의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느긋하게 걸으면서 만끽해 주세요.



아인사



로아레 성

셋째 날 | 아인사 →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 → 토를라 → 하카

피레네 산맥을 대표하는 자연의 보고 오르데사 국립공원은 당일 치기 하이킹, 등산, 해발 2000m 높이의 전망대 투어가 인기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의 토를라를 산책하고 아라곤 왕국의 옛 수도 하카로. 대성당, 로마네스크 미술 컬렉션이 유명한 교구 미술관, 별 모양 요새에 둘러 봅시다. 밤에는 바르를 돌아 보세요.

넷째 날 | 하카 →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 리글로스 → 로아레 성 → 우에스카

피레네의 대자연에 홀연히 나타나는 페냐 수도원은 아라곤 로마네스크의 걸작. 프레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높이 300m의 리글로스 암괴가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유럽 최고의 보존상태를 자랑하는 로아레 성에서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고, 고도 우에스카에서는 작고 걷기 편한 구시가지를 산책해 봅시다.



알바라신

사라고사와 테루엘 4일 코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지 사라고사에서 출발. 스페인 제5 도시 사라고사는 세계유산 건축물, 바르, 아름다운 구시가지 등 관광 명소가 가득합니다. 아라곤 남부의 테루엘로 이동하면 이베리아 산맥의 황량한 대지에서 세계유산 무데하르 건축물과 아름다운 소도시를 만납니다.

첫째 날 | 사라고사

필라르 성모 대성당을 기점으로 구시가지 산책. 세계유산인 살바도르 대성당, 로마 시대의 유적지, 뛰어난 판화 컬렉션을 자랑하는 고야 미술관, 구시가지의 골목, 「엘 투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바르 지구에서의 타파스 투어 등을 추천합니다. 알하페리아 궁전에도 꼭 들러 주세요.

둘째 날 | 사라고사 → 피에드라 수도원 → 다로카 → 알바라신

스페인 제5 도시를 뒤로 하고 피에드라 수도원으로. 아름다운 수경과 식물들로 이루어진 정원을 산책하는 코스가 인기 있습니다. 중세의 정취를 지닌 작은 마을 다로카에 들렀다가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름다운 마을의 한 곳인 알바라신으로. 아침, 저녁, 밤, 언제 보아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법에 걸린 마을입니다.



산 마르틴 탑(테루엘)

셋째 날 | 알바라신

적갈색 거리를 지나 마을 산책. 마요르 광장, 옛 대성당, 훌리아네타의 집, 성벽, 강가 하이킹 코스, 역사 박물관,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등, 시간을 들여 느긋하게 찾아가고 싶은 길목이 많습니다.

넷째 날 | 알바라신 → 테루엘

테루엘의 주도, 테루엘 시는 무데하르 건축의 보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데하르 양식의 종루 4개가 구시가지를 장식합니다. 대성당, 테루엘의 연인들의 묘, 토리코 광장 등 볼거리가 가득. 본고장 테루엘의 하몬은 꼭 드셔 보세요.



피에드라 수도원



아인사

피레네 산맥 6일 코스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이에 늘어진 피레네 산맥의 자연과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가는 코스. 명산이 모인 아라곤 피레네를 걷고, 오르고, 먹고, 보고, 오감으로 만끽해 주세요. 스페인의 「숨은 비경」 피레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첫째 날 | 송포르 고개 → 하카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나는 아라곤 계곡에서 출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계곡에는 자연은 물론, 칸프란크 국제역과 비야누아, 아라곤 왕국의 옛 수도 하카 등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열차, 버스를 타고 차창 밖 경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날 | 사엔트 데 가예고 → 포르탈레트 고개 → 세라블로 성당군 → 톨라

프랑스와의 국경을 이루는 포르탈레트 고개에서는 중앙 피레네의 상징인 오소 고개가 한눈에 보입니다. 테나 계곡 인근 산을 바라보며 세라블로 성당군을 방문하고, 또 다시 골짜기를 넘어 중앙 피레네의 중심부로 여행을 이어 갑니다. 웅장한 산악 풍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톨라에 도착합니다.

테나 계곡

둘째 날 | 하카 →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 산타 크루스 데 라 세로스 → 사엔트 데 가예고

아라곤의 3대 로마네스크로 손꼽히는 하카 대성당과 페냐 수도원. 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보존된 소박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감상해 보세요. 산기슭의 작은 마을, 산타 크루스 데 라 세로스에 들렀다가 피레네 산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테나 계곡으로. 마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수려한 풍광의 사엔트 데 가예고를 산책해 보세요.



피레네 산맥 6일 코스



오르데사 계곡



세라블로 성당군

넷째 날 | 톨라 → 오르데사-몬테 페르도 국립공원 → 아인사

세계 유산에 등재된 오르데사 국립공원으로. 하이킹, 종주, 2000m 전망대 루트 등,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산장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가바르니 권곡으로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실컷 즐겼다면 피레네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마을 아인사로. 높직한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래된 거리를 걸으며 중세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세요.

여섯째 날 | 알케사르 → 우에스카

알케사르의 구시가지에서 베로 협곡으로 하이킹 출발! 마을을 둘러싼 에메랄드 그린 색 베로 강을 바라보며 자연의 조각품 같은 계곡을 걷는 2시간 정도의 코스입니다. 우에스카에서는 산 페드로 성당과 대성당이 서 있는 구시가지 산책. 바르 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 | 아인사 → 로다 데 이사베나 → 알케사르

피레네에는 아인사 외에도 아름다운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로다 데 이사베나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 대성당을 둘러 보세요. 스페인에서는 드문 양식인 성당 내부 구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슬람 교도가 만든 알케사르는 미로 같은 마을과 산타 마리아 성당이 명소입니다.



알케사르



www.turismodearagon.com/ko/



ARAGÓN

turismo
sostenible

지속 가능한 관광



아라곤

스페인의 비경

아름다운 마을

피레네 산맥

한가로운 풍경